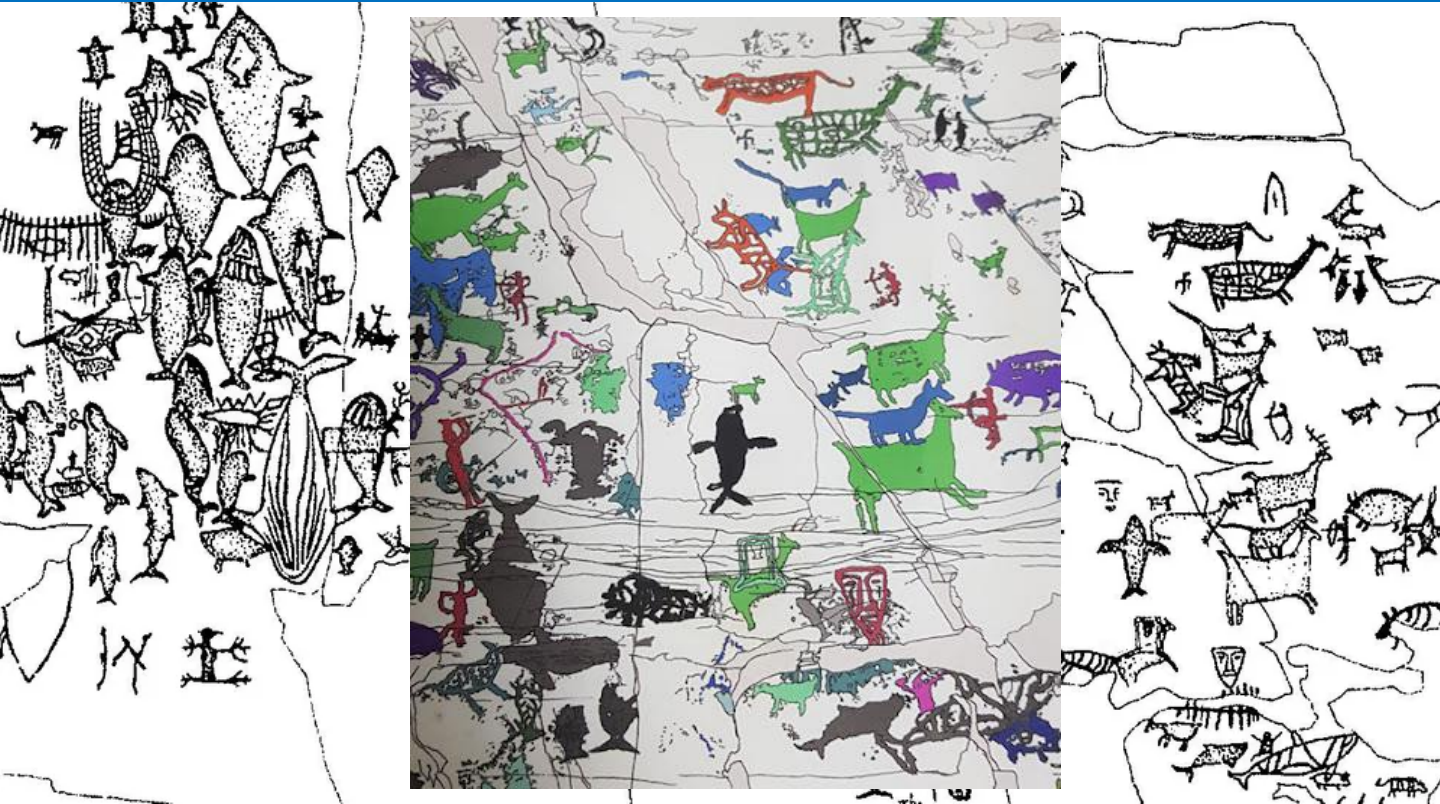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5년 6월호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

인사말 나영일 / 03
활쏘기문화보존회의 현재와 미래 김기훈 / 07
전통활쏘기 심켄트 아시안컵을 다녀와서 지동철 / 10
활쏘기와 디자인의 힘 박민정 / 17
활터의 생활과 예절 2 : 신입사와 등정례 김이수 / 23
스포츠클럽을 통한 활쏘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제안 윤성재 / 28
활동 / 32
회원대모집 / 38

* 표지 사진 -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

펴낸이 나영일
엮은이 변정용
펴냄날짜 2025년 6월 27일
펴냄범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인사말 나영일 / 03
활쏘기문화보존회의 현재와 미래 김기훈 / 07
전통활쏘기 심켄트 아시안컵을 다녀와서 지동철 / 10
활쏘기와 디자인의 힘 박민정 / 17
할터의 생활과 예절 2 : 신입사와 등정례 김이수 / 23
활동 / 27
회원대모집 / 32

* 표지 사진 - 울산 반구대 암각화 활쏘기

펴낸이 나영일
엮은이 변정용
펴냄날짜 2025년 6월 27일
펴냄범위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인사말



나열일(회장)

존경하는 활쏘기문화보존회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작년 12월 30일(월) 화랑정에서 2024
년도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1시간 정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군사전문박물관인 육군박물관을
방문하였고, 총회 후에는 두팀으로 나
누어 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편사후
에는 화랑정 근처의 명가소나무집에
서 오리백숙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 양평정에서
단오편사대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여
러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인 단오(端午)에는

씨름과 함께 활쏘기를 하였음을 조
선시대에 세조와 성종 때의 기록이 남
아 있습니다. 그리고 1935년 동아일
보 기록에 사진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국가인류무
형문화유산 경산자인단오제(慶山慈仁
端午祭)에서는 작년과 올해 전국대회
를 경산 삼성현정에서 열고 있습니
다. 보존회에서는 지난 2022년도에
이어 3년만에 열게된 행사입니다. 승
패를 떠난 편사대회는 서로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
다. 양평정 차운경사두와 한용진부사
두님의 후의로 보존회의 17명 회원들
과 양평정사원 7명과 함께 편사를 거
행하였습니다. 이번 단오편사에서는
저녁 식사비를 석호정의 김영섭회원이
후원해주었고, 남현경여무사가
선물로 보궁을 찬조해주었으며, 안
양정의 David와 Jakaria가 지동철사
무국장과 같이 참여하여 국제편사대
회가 되었습니다. 추후, 보존회에서는
단오날에 대회를 정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11월 23일 울산에서 열린 「궁도(활쏘기) 역사고증 학술대회」와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궁도진흥법 공청회」에서 제가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시 궁도(弓道)나 활쏘기나하는 용어 문제로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어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장 이름으로 『국궁신문』에 글을 써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카자흐스탄대회에서 열리는 노마드대회와 아시안게임에 참석하였고, 대한궁도협회가 주관하는 「궁도(활쏘기) 역사고증 학술대회」와 「궁도진흥법 공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초까지 대한궁도협회와 울산시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제학술세미나를 거행하는데, 저보고 학술위원장을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일단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궁도협회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학술위원을

선정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의 회원은 안된다고 하여 너무도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2007-2015,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 및 예천군)의 국제학술대회를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10년간 이를 주도하였던 원성모 사무총장과 최초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던 김기훈교수를 비롯한 국궁계의 유산을 너무 쉽게 팽개치고, 2016년 대한궁도협회가 생활체육궁도연합회와 통합하였던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씁쓸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는데 쉽지 않아서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활쏘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어떤 용어로 사용할지 또 「궁도진흥법 공청회」에서와 같이 그대로 궁도라는 용어로 진흥법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대한궁도협회의 김창순회장은 궁도 이외의 단어를 사용하면 대회를 인정하지 않고,

활쏘기나 궁궁이나 궁술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단체와 함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협회장의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대한궁도협회와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8월쯤 내년에 활쏘기의 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를 위한 제안서를 가져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3월에 열린 카자흐스탄 아시안게임에 같이 가자고 해서 보존회에서 저와 변정용교수, 지동철사무국장과 같이 갔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대한궁도협회장의 편협한 시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울산시는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한 3억원의 예산을 울산방송국에 주고, 다시 대행사를 통해 해외학자 및 각국 대표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국제학술대회를

끌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대한궁도협회는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역할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우리 이사들에게 이 문제를 공유하면서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에 대하여 질문해보았습니다. 모두들 그만 두는게 좋겠다고 이 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4월 12일 울산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한 내용은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식적으로 국제학술대회는 잘 마무리된 것 같으나, 튀르키예가 주도하는 세계궁도연맹과 울산시가 주도하는 세계궁도연맹의 관계 그리고 울산세계궁도대회의 종목과 관련한 내용은 제대로 논의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대궁회장은 맘에 안든다고 학술회의 중간에 간다고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대한궁도협회와 울산시는 울산세계궁도대회를 10월 31일부터 올해 대한궁도협회와 울산시는 울산세계궁도대회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합니다. 4박5일간 50개국 80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한궁도협회가 국민생활체육회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는 Puta(70, 60m), Qalqan(60, 50m), Zhamby(30m)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회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일겁니다. 어차피 이 대회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근사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테니스복장인 흰옷 145m로 각궁, 죽시만을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불균형한 모습이라는 것을 작년과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세계유목민경기대회기와 아시안게임에서 전통활쏘기를 경험한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궁이 울산시와 MOU를 맺고, 또 43개국과 MOU를 맺은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근사경기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연맹과 일부단체에서 실시한 근사경기를 이번 소식지에는 우리 활쏘기보존회의 미래에 대하여 몇 분에게

글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한궁도협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몇몇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활쏘기보존회의 정체성으로 학교스포츠로서의 활쏘기문화를 보존하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김기훈교수와 윤성재교수가 멋진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이수, 지동철, 박민정접장님께서도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후 글을 발표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소식지를 멋있게 만들어주신 변정용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끝.

활쏘기보존회의 현재와 미래

'견제'를 넘어, '미래'를 여는
전략으로



김기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화랑정)

(사)활쏘기문화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 '활쏘기'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2021년 2월 2일 창립되었다. 학술연구, 국제 교류, 청소년 대상 보급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보존회의 사업 목표로 제시하고, 설립 이후 향사례 원전 연구, 울산 반구대 암각화 관련 학술활동 주관, 서울시 전승공동체 사업 수행, 카자흐스탄 유목민 축제 참가 등의 실적을 통해 보존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명해진 불편한 현실은 대한궁도협회의 노골적인 견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활대회 관련 학술 사업에서 보존회 회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대한궁도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문화유산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자, 다양한 단체의 활쏘기 문화 보존 노력을 무시하는 편협한 리더십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처사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보존회가 오랜 시간 대내외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온 국제 활쏘기 문화 협력 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일방적으로 대궁 중심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입장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중국 외교 전략 중 하나로 알려진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는 지금 보존회가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시사한다.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차분하고 꾸준한 축적을 통해 실력을 기르는 방향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적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 활쏘기 문화사업’에 대한 집중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쏘기 문화의 보급과 활성화는 현재 대한궁도협회의 주된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며, 따라서 보존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미국 NASP(National Archery in the Schools Program)의 사례는 매우 유의미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https://www.naspschools.org>)

NASP는 2001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어류·야생동물자원부, 교육부, 민간 활 제조사(Mathews Archery)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 21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1년 만에 120개교에 확대되었고, 현재는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 확산되었다.

NASP는 비영리 조직으로 각 주의 교육청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체육 수업의 일환으로 정규 교과 과정 안에 활쏘기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초등

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교육 대상으로 하며, 국제 표준 타겟 아처리(International Style Target Archery)를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교사는 NASP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도법을 습득한 뒤 수업을 진행하며, 사용 장비는 Genesis® 컴파운드 보우와 Easton 1820 알루미늄 화살로 표준화되어 있다. 지역, 주, 국가 단위의 대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NASP의 성공은 몇 가지 요소에 기반한다. 첫째, 성별, 체격, 운동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설계다. 둘째, 집중력과 인내심 등 비인지적 능력의 향상 효과가 분명히 관찰되며, 학업 성취도와 출석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셋째, 철저한 안전 규정과 교육을 통해 현재 까지도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NASP의 사례는 전통 활쏘기 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청소년 교육이

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 수업이나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활쏘기 체험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거나 정규 교육과정 내로 편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존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보존회는 NASP와 유사한 청소년 활쏘기 교육 모델을 기획하고, 교사 및 지도자 양성, 안전지침 마련, 표준 장비 선정, 커리큘럼 개발 등의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범학교 운영, 지역 교육청과의 협력, 국제 교류 확장을 통해 활쏘기 문화의 미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보존회의 구성원 특징은 대학교 체육 교수들의 참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체육 교과과정에 활쏘기를 포함시키는 사업의 기획과 실천에 어느 단체보다도 보존회가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보존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당장의 충돌이나 갈등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치밀한 실천을 통해 독자적인 정체성과 영향력을 구축하는 일이다. 청소년 활쏘기 문화사업은 그러한 전략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으며, 보존회가 진정으로 활쏘기의 미래를 여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이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할 때다. 끝.

심켄트 아시안컵 전통활쏘기대회에 다녀와서



지동철

(본회 사무국장, 안양정)

중학교에 다닐 때 실크로드를 소개한 책에 심취하여 몇 번이고 읽으며 더 넓고 큰 세상을 동경하던 때가 있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는데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다녀와서 예전 청소년 시절 미래를 꿈꾸던 내 모습이 그리워졌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리 잘 살지 못하여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시절이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지역은 대부분 소련 영토에 속해있었고, 주변 독립된 국가들도 공산주의 국가였기에 그곳으로의 여행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서 어린 시절 막연하던 상상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는 지금을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 듯싶다. 짧은 시간의 비교에서는 역사 인식이 여기에 그치지만 사실 조금만 역사적 식견을 더하면 넓은 대륙의 초원에 대한 이상은 한국사람이라면 한번은 들어 보았을 민족이동의 시원지이며 우리 먼 조상들이 머물고 지나온 고향은 아닐지 유추해 본다. 더욱이 한국에서 전통활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활쏘기가 기마사법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 활쏘기 환경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옛날 대륙의 넓은 땅을 여행하며 살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며 살던 유목민의 기상을 이어받아 한국 사람들은 유독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여행을 좋아하지만, 몇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카자흐스탄여행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유목민대회에 참가 하였고 올해 3월에는 심켄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활쏘기대회에 연이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유목민 대회는 변정용교수님께서 쓰신 ‘세계유목민대회 아스타나 2024 전통활쏘기 출전기’ 에 소식을 잘 정리하셨기에 심켄트에서 열린 아시안컵대회를 중심으로 기억을 전해 본다. 2025년 1월 중순에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장이신 나영일 교수님으로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활쏘기 대회소식을 듣고 활쏘기문화보존회 차원에서의 참여를 고심하였다. 마침 2025년도에 울산시에서 세계궁도대회를 기획하고 있었기에 울산시 궁도협회를 중심으로 아시안컵대회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는 몇 개월 사이 다시 같은 나라에 방문하는 것이 부담이 있었으나 중앙아시아 문화가 어우러지는 전통활쏘기대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흔한 일도 아니고 또한 2025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울산세계대회 준비에 내가 경험한 몇 차례의 국제대회 참여가 도움이 될까 해서 나영일 회장님과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하였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 낯설지는 않지만 이번에 대회가 열리는 심켄트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나도 이번 대회를 통해 지명을 처음 들어 보았기에 미지에 대한 신비감이 색다른 경험을 기대하게 하였다. 심켄트는 특별시로 알마티와 수도인 아스타나에 이은 3번째 큰 도시로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 이 지역은 유목민족의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는 흔치 않은 농업이 가능한 지방으로 농업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120km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인지 3월 초임에도 이곳은 벌써 우리나라의 매화꽃 비슷한 나무에 꽃망울이 맺혀 있을 만큼 따뜻한 기온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북쪽임에도 실크로드 주변의 사막기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활쏘기문화보존회 나영일 회장님과 지동철 사무국장 그리고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에서 강의 중이신 변정용 교수님이 참여하였고, 울산시 궁도협회 소속 선수5명 임원1명과 울산시 방송국관계자 4명 울산시공무원 2명 등으로 총14명이 참가 하였다. 처음 초청 대상은 5명의 선수였으나 올해 열리는 울산세계대회 준비관계로 처음계획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선수 외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합일은 3월 14일부터 17일까지였으나 나와 나영일회장은 타슈켄트에서 변정용교수님과 만나 동행하기로 하여 12일에 타슈켄트공항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였다. 심켄트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나 아스타나국제공항보다 타슈켄트가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워 비행기를 갈아 타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기에 이 노선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처음이지만 종교와 문화가 카자흐스탄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언어도 유사하여 키르기스탄과

3개국이 소통에는 많은 문제가 없고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서로 통행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육로로 국경을 넘는 노선으로 타슈켄트에서 심켄트까지 이동하기로 하였다. 타슈켄트에서 국경선까지는 택시로 30분 정도 이동하여 도착하였다. 비행기나 배를 타야만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육로로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은 이질적이면서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국가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 주변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과 소규모의 생필품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주로 왕래하고 그외의 외국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곳 국경지대는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 아직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국경근처에는 마치 시장이 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람들의 교통편을 제공하는 택시와 승용차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여 혼잡하면서도 정감이 있었다.

국경에서 심켄트까지는 택시로 약 1

시간 30분가량 이동 후 심켄트의 호텔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울산에서 출발한 선수 및 관계자들과 합류하여 저녁식사를 하며 울산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 앞으로 이곳에서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대회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것을 논의하였다.

다음날 대회장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지난번 유목민 대회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인지 교통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경기장은 현대식 종합경기장에 과녁을 설치하였기에 넓은 대륙 자연과 어울어진 초원에서의 활쏘기를 기대하던 마음에 실망감이 없지 않았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컵이라는 주제에 따라 개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11개 국가의 선수들이 출전하였다. 지난번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 유목민대회 때 보다는 참가국 수는 적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였다. 터키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는 표적을 보통

터키식 과녁인 부타(남자 70m 여자 60m), 일반적인 동심원형태의 과녁 팔관(남자 60m 여자 50), 그리고 원형 지름 25cm의 표적을 허공에 매달 놓은 잠비(남녀 30m) 종목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부타와 잠비 두 가지 방식의 경기만 진행하였다. 첫날 경기는 부타경기로 남자 60m, 여자 50m 경기, 둘째날에는 잠비 30m, 셋째날에는 잠비과녁으로 단체전으로 진행하였다.

대회진행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꽃히는 과녁을 사용하고 사람 수 만큼의 표적을 설치하여 각자 정해진 시간에 9발을 자신의 조건에 맞추어 발사한다. 이러한 방식은 대회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과녁에 꽃히는 화살로 점수를 부여하여 경기시간이 단축되고 판정도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선수들은 순위권에 들지 못하였는데 아무래도 긴 거리(145M)를 위주로 하는 한국선수들에게 작은 과녁의 중거리와 근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아직은 부족한 듯하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우 중·단거리

훈련을 위주로 하기에 145m에 고정된 거리에서 활을 쏘는 한국 선수들이 적응하려면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활과 화살 및 제반장비에 서도 우리가 쓰는 장비가 이러한 중·단거리 경기방식에 효율적이지 않기에 유리하지 않고 또한 활을 당기는 사법에서도 단거리를 쏘기에는 불리한 점이 있어 보인다. 중·단거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나의 경우 지난번 유목민대회를 비롯하여 몇 차례 중·단거리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경기장이나 과녁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생소했던 점도 불리한 점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더 중요한 교훈은 경기 성적보다 선수들 복식 및 장비에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 사실 전통활쏘기대회는 각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각 민족의 개성을 잘 표현한 장비와 복식을 착용한다.

각 나라의 선수들이 민족의 전통복장을 입고 각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개성을 뽐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복식문화와 활쏘기와 관련된 각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단순히 활을 쏘는 즐거움을 넘어 각 민족의 전통의상과 활쏘기와 관련된 장비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고 서로 활쏘기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특히 전통활쏘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활과 화살 및 관련 도구를 장만하는데 있어 기성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제작하여 각민족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경기복에 본인들이 활을 화살에 걸어서 당기는 모습을 직접 수를 놓은 옷을 입고 출전하였고, 터키에서 온 부자의 복식은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듯한 격식과 품위가 있는 멋진 모습으로 관심의 중심이 되어 사진 모델로서 분주히 인기를 누렸다. 이에 비해 경기 시작 직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복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전통복장을 입고 대회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한국 선수들만 모두 운동화를 착용하고 대회에 출전하였다. 결국 한국선수들은 모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시합하는 조건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활쏘기가 전통복식과 같은 문화적인 측면이 결여되어 세계인과 교류를 위해서는 활쏘기 문화에 내재된 우리민족의 전통 방식을 재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었다. 지난번 아스타나에서 열린 유목민대회에는 참여선수들이 모두 자비를 들여 전통복식과 관련 장비를 한국전통 방식으로 제대로 구입하여 출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한류스타에 버금가는 많은 관심과 인기에 행동에 제약이 따를 정도였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준비의 소홀함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활쏘기는 전통활쏘기를 표방하며 국궁을 하고 있음에도 활쏘는 활과 화살에만 전통의 의미를

고집할 뿐 경기진행 방식이나 복식 및 제반 여건은 현대식양궁과 차별화 되지 않고 오히려 스포츠경기의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같다. 활쏘기와 관련된 전통용구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었기에 준비에 소홀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통활쏘기대회는 보통 올림픽게임이나 다른 세계적으로 열리는 현대화된 스포츠 경기보다는 보다 문화적인 어울림의 행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활을 비롯하여 각 나라의 전통복장 및 용구를 갖추고 각 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여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활쏘기는 활과 화살은 전통을 고집하여 어느 정도 지켜왔음에도 그 밖의 복식이나 활쏘기와 관련된 문화는 지나치게 스포츠경기화 되어 전통문화 체험으로서의 활쏘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에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남녀노소 대중이 함께 할 수 있고 세계인들과도 문화로 교류할 수 있는 활쏘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활쏘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에서 활쏘기가 대중들에게 전통의식과 복식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할 수 있는 활터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어설픈 역사적 인식에 바탕한 현재 우리의 활쏘기 문화는 한국전통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편리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몇 차례의 유목민대회 및 전통활쏘기 대회에 참여하여 경험하고 보니 한국 내에서만 알고 있던 고정된 시각으로서의 활쏘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수 있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활쏘기 방식이 있고 국가와 민족마다 고유한 활쏘기 문화가 나름대로 전통을 이어오며 그 맥을 잇고 있다. 활쏘기는 단순히 활을 쏘는 행위에만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복식과 부수장비 등 여러 가지 용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들은 각나라와 민족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고, 각나라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구를 통해 전시장에 보관되어 생명력이 사멸된 전통을 넘어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전통으로 이어져 실천되는 활쏘기 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끝.

활쏘기와 디자인의 힘



박민정 (석호정)

서울 중구궁도협회 석호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복을 입고 습사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젊은 접장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 기존 회원들과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당연히 매 회 소셜미디어에 일시를 공지하는 간단한 이미지 작업이 필요했고, 당시 홍보이사의 요청으로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활과 관련된 디자인 작업을 종종 부탁 받게 되었는데, 작업을 해오면서 느낀 것들을 짧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1월03일 | 신사의 날
with 한복



우구구도협회
石虎亭



우구구도협회
石虎亭



서울시 중구궁도협회
石虎亭

2025년 4월 5일 13시

한복의 날



우구구도협회
石虎亭

지난 4월 19일, 서울시 중구궁도협회와 서울시 중구청, 중구체육회 주관으로 [충무공 이순신장군 활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중구궁도협회 소속으로 행사준비를 도우면서, 전시와 이벤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들을 디자인할 기회가 생겼다.

팸플렛과 패널, 로고, 스티커, 과녁 등 사용처가 많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디자인 작업이 필요했다. 이순신장군, 당시의 복식, 활, 화살, 수군, 무과시험...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그리고 서적으로 나온 의상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의 이미지가 기존에 방영된 사극이나 책에 나온 삽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상상하는 충무공 이순신의 이미지는 광화문에 세워진 동상이 대변한다. 1968년 광화문에 건립된 청동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손에 들려 있는 커다란 검이다. 또한 2015년에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롭게 설치했다는 충무공 석상 역시, 여러 고증을 반영했음에도 동일하게 검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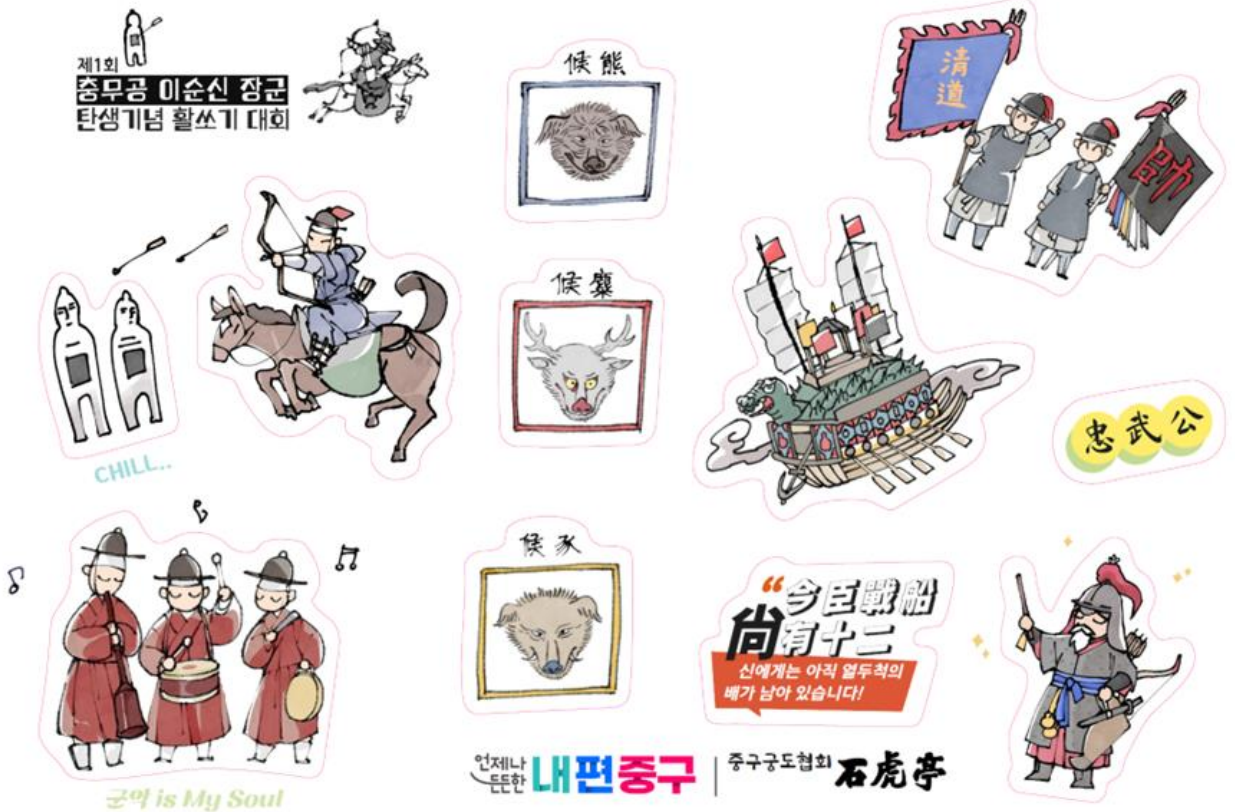
장군이라면 검을 들고 전장을 누빌 것이라는 사극에서 본 [만들어진 이순신의 디자인]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다.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 묘사된 이순신의 모습과, 『난중일기』에 수없이 나와있는 습사기록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활이 아닌 검을 먼저 떠올리는 것을 보면 이미지가 가진 힘이란 정말 대단하다.

한편으로, 국회의사당의 이순신 석상 개립(改立)과 같은 해인 2015년의 11월,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건립한 이순신 동상은 활과 등채를 들고 두정갑을 입고 있다. 전장에서 활약하는 장수의 모습에 더해, 꾸준한 습사를 통한 심신의 수련을 강조하고 싶었던 디자인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듯 디자인이란 어떠한 사물을 의도를 가지고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장군 활쏘기 대회에 필요한 디자인은, 조금 낮설고 부족하더라도 시대 고증을 지킨 복식이었으면 했다. 특히 일반적인 대회와 다르게 학생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귀엽고 흥미를 끌면서도 고증에 오류가 없어야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스티커와 팸플릿에 사용된 이미지는 모두 조선 중기의 복식을 따랐고, 과녁도 사료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이런 의도에 호응해주신 많은 중구궁도협회분들이 흔쾌히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다. 덕분에 초등학생도 즐길 수 있는 대회로 마무리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새로 활을 배우는 초등학생들이 이순신과 활을 함께 연상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이런 디자인의 힘을 느끼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 대회로부터 반년 전, 2024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월드노마드게임에서도 디자인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다. 선수로 임하면서 부지런히 근사 연습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있다.

바로 팀 디자인이다. 첫번째로는 전세계 사람들과 전통의상을 입고 만나



는 자리인 만큼 어떤 한복을 맞출 것인지, 어떤 궁대를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었고, 두번째로는 현수막과 배지에 사용할 활쏘기문화보존회 로고의 디자인이었다.

로고 디자인에는 단체의 상징뿐만 아니라, 분위기, 의미, 지향점 등이 함축된다.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일례로 대한궁도협회의 로고를 살펴보면, ‘활’이라는 글자와 활쏘는 사람을 모티브로 태극기의 적색, 청색을 가미하였다. 한국에서 활 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보존회의 로고 시안을 몇 가지 준비하면서, 예시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다. 보존회를 나타내는 상징은 당연히 우리 활이나, 추가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로고는 너무 단순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었다. 양보와 도움 속에 젊은 접장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함이 더 세련되고 눈에 띈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활 모양, 하나가 아닌 우리, 간략화된 활모양처럼 보이면서도 같은 곳을 향해 나란히 선 사람들의 옆얼굴을 형상화했다.

월드노마드게임 마지막날 현수막을 들고 만찬장 앞에서 완성된 금속 배지를 타국 선수들과 나누면서 활에 대해 교류하고, 고심해서 제작한 궁대와 전통 한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찍는 것. 특히 대회기간 내내 한복에 대한 외국인의 호응은 놀라울 정도였다. 대회의 규모가 큰 만큼, 관심을 끌고 시선을 모으는 것도 역시 디자인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디자인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2023년 10월 3일 관악정에서 열린 장안편사



놀이를 위해 만든 응원용 현수막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용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활쏘기와 관련된 행사에 좀 더 많은 신사들과 즐기고 싶어서 제작하였다. 인천에서 갓 집궁한 신사였을 때 편사놀이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흔쾌히 참가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활을 내었던 기억이 있다. 때문에 서울에도 장안편사놀이가 열린다고 들었을 때 또래 신사들에게 응원을 가지고 제안을 하였는데, 다들 선뜻 참가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선수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편사놀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듯싶었다. 그때 제안했던 것이, 응원용 현수막을 만들 테니 한복을 입고 구경 가자는 것이었다.

당시 청군에는 석호정, 공향정, 황학정이 편성되었는데,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신사들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각 정을 캐릭터화 하여 만들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때의 기억으로 계속해서 대회나 이벤트에 참여해주는 것 같아 기쁠 따름이다. 이것도 디자인의 힘이라면 힘일 것이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때 대중회에서 좋게 봐주신 덕에 오방신기(五方神旗), 문기(門旗) 등을 빌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활쏘기 대회를 더 멋지게 치를 수 있었다. 2023년 장안편사놀이에서 사용한 응원 현수막 최근 불교박람회 에 젊은이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금년 사전등록만 해도, 작년대비 3배가 늘어난 4만명이 넘는다. 종교와 상관없이, 최근 트렌드에 맞춘 세련된 디자인과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힙한’ 굿즈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당연히 템플스테이 참가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한복박람회인 [한복상점]의 2024년 참관객의 수도 4만5천명을 훌쩍 넘겼다. 금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일상복처럼 입는 멋진 개량한복에 관심이 아주 높는데, 이것은 높은 확률로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또한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최근 몇 년간 프로그램 개수가 크게 늘었다.

궁과 유적에서 밤낮으로 열리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티켓 구매에 열을 올리고, 기업들이 앞다투어 후원한 전통 아이템 제작 클래스를 듣는다. 바야흐로 현대에 녹아든 전통이 젊은이들의 대세가 된 시대이다.

여기에 우리 활쏘기도 한발 걸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경험과 재미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이미지를 올리면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다른 이에게 전달된다.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지고 유행이 된다. 전통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이라면 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한층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전통 활쏘기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올해는 수년간의 공백을 지나 울산에서 드디어 세계궁도대회가 열린다고 한다. 큰 대회와 행사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길 기대해본다.끝.



활터의 생활과 예절 2 :

신입사와 등정례



義山 김이수(서령정)

활터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풍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대해 이 중화(1929)는 “습사를 할 때에는 사표를 존대하고, 선진을 공경하며, 동지는 예절과 겸손을 다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당대의 사풍임을 자긍심있게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존대, 공경, 예절, 겸손에 주목한다. 즉 당대의 사풍에 내재된 본질이 겸양과 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쳇말로 활터는 각 지역의 유지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근접하기 어려운 장소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전통활쏘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활터의 숫자도 크게 늘었다. 현재에는 400여 곳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최종병기 활”은 활터의 사원 증가의 촉매역할을 하였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주인공이 활로 청나라 병사와 싸우며 누이를 구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초반부에 등장하는 ‘전추태산 발여호미’와 영화 전 과정에 등장하는 ‘편전(애기살)쏘기’, 그리고 종반부에 주인공의 명대사로 인식된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라는 대사만 남는다. 필자도 감명 깊게 관람한 부분이다. 하지만 겸양이나 예절과 관련된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주인공이 활쏘기에 몰입할

뿐 어른께 무례함을 보이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강무의(講武儀), 향사의(鄉射儀) 등은 활쏘기의 격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검양과 통한다. 그리고 이 중화의 『조선의 궁술』에서는 신입사, 등정례, 중례 등은 물론 편사의 과정과 절차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진명(1999, 2010)도 『조선의 궁술』의 내용을 근간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어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활터에서의 예절과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교육 정도의 수준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첨가하면 활터의 생활은 무난해 보인다. 여기에 언행 등의 표현과 행동은 겸손하고, 의견은 최소화하고, 활쏘기의 시수는 내세우지 않고 겸허함을 갖는 정도면 충분해 보인다. 이것이 검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신입사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화(1929)는 초입사와 신입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초입사에서는 활터에 입문 할 때에는 부모와 조부가 입사한 활터에 입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유추하건대 근묵자흑(近墨者黑)을 통해 입사를 허락하고자 했던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해석해 본다. 이는 현대에 와서 활터에 입사하기 위해서 주변인의 복수 추천을 통해야만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과 통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당시의 활터는 민간 주도의 활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가 되면서 민간 활터보다는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관설 활터 전주 천양정, 강경 덕유정, 김제 홍심정, 영암 열무정 등이 민간 활터에 해당한다면, 기타 대부분의 활터는 자치단체의 경제적 도움으로 운영되는 활터는 관설 활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가 되면서 민간 활터 보다는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관설 활터1)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주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활용가능한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현재의 활터는 전통문화로서의 공간보다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터 역시도 사풍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지도와 병행하여 검양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은 등정례2)에 대해 살펴보자. 등정례는 본인이 활터에 올라왔음을 알리는 첫 인사이다. 이중화(1929)는 등정례에 대해, ‘등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온 사원에게 인사하고, 먼저 온 사원도 인사에 답례하라’고 하였다.

특히 인사는 ‘계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라’고 강조하였다. 등정례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1) 전주 천양정, 강경 덕유정, 김제 홍심정, 영암 열무정 등이 민간 활터에 해당한다면, 기타 대부분의 활터는 자치단체의 경제적 도움으로 운영되는 활터는 관설 활터라 할 수 있다.

있는 편이다. 다만 방식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바쁜 일상생활을 쪼개어 습사에 임한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움이 없는 형식적인 등정례의 모습은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즉 데면데면한 등정례의 모습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를 가끔 목도하게 된다. 고 있는 편이다. 다만 방식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바쁜 일상생활을 쪼개어 습사에 임한다.

2) 등정례에는 정간배례(정간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정간과 정간례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정진명선생의 설득력있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서로의 이견들이 많아 좀 더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문화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간과 관련해서는 대한궁도협회나, 활쏘기문화보존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 의견 수렴이 더욱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여유로움이 없는 형식적인 등정례의 모습은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즉 데면데면한 등정례의 모습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를 가끔 목도하게 된다.

현재의 활터는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많은 사원들이 함께한다. 필자의 관점으로 굳이 세대를 분류하자면 3세대로 분류하고자 한다. 1세대는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리던 세대(70-80대), 2세대는 어린시절 학교 등·하교시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학교 다녀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빼먹지 않았던 세대(50-60대), 그리고 학교 등·하교를 부모나 통학버스의 도움으로 등·하교 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버린 세대(30-40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세대는 인사방식과 표현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세대 간에 차이로 생기는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등정례에 내재된 겸양을 형식적이라도 외형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느낀다. 즉, 신사를 교육시킬 때 그 필요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시킬 필요성을 있다.

사실 인사는 나 중심의 인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한 인사이어야 한다. 기왕 하는 등정례라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등정례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절도 나 중심의 예절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예절이어야 하고, 겸양도 나 중심의 겸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겸양이어야 한다. 끝.

스포츠클럽을 통한 활쏘기의 발전 과 미래를 위한 제안

윤성재

(전남과학대학교 겸임교수)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 클럽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기존의 생활체육 동호회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시켜,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스포츠 '꿈나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그 핵심 목표라 하겠다.

스포츠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또한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스포츠 기본법(2022년 8월 시행)은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삶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2016년부터 '우리활터'(비영리)를 운영하며 매년 청소년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광주시공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클럽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광주공도스포츠클럽'의 설립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까지 실무를 맡았으며, 현재는 클럽 지도자로 활동중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공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국공장에서 다양한 교육 및 참여 활동이 보장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재는 한 개의 <공공체육시설>에 한 개의 <경기단체>만 승인하는 대한공도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의 공도종목의 진입을 특정동호회가 독점 하면서 신규회원 유입이 노장년, 남성 중심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있다.

또, 엄연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호회>의 전용시설처

처럼 사용하는 형태가 고착되면서 일반시민과 공도인 모두에게 잘못된 관리의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동호인들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성인남성’, ‘상급자’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초보자, 여성, 학생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어려운 현상은 <경기단체>와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장악한 새로운 단체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끝으로 공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GWANGJU N.A.S.C. 사단법인 광주공도스포츠클럽 제1차 집궁례
 일시: 2022. 2. 5 장소: 광주송무정
 위성장·장재봉·황국진·김태완·정미덕·김설아·류형환·김성수·윤소희·최이두·김준혁·윤소빈

제1차 광주공도스포츠클럽 집궁행사

2022. 2. 5 광주 송무정

<공공체육시설>내 지도자가 배치 되어야 하지만 자격을 갖춘 스포츠지도사가 배치된 시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공백을 동호회의 사범이 무급으로 메우면서

폐쇄적인 운영이 고착화 되어 궁도종목이 다양한 지역민들과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었다.

전통종목에 대한 위협 vs 미래세대를 수용하는 선제적인 대응!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정책 변화는 생활체육의 한 분야인 궁도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클럽 제도를 활용하여, 궁도계가 안고 있는 관례화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통적 기반 위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궁도)스포츠지도사의 양성과 배치는 궁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일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입문자에게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지역 사회 내에서 궁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궁도)스포츠지도사가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젊은 세대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가족 단위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 활쏘기 체험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은 물론, 궁도의 대중화에 매우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공공체육시설인 국궁장은 (궁도)스포츠지도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다양한 세대의 관심을 함께 끌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전통문화로서의 ‘활쏘기’를 포괄하는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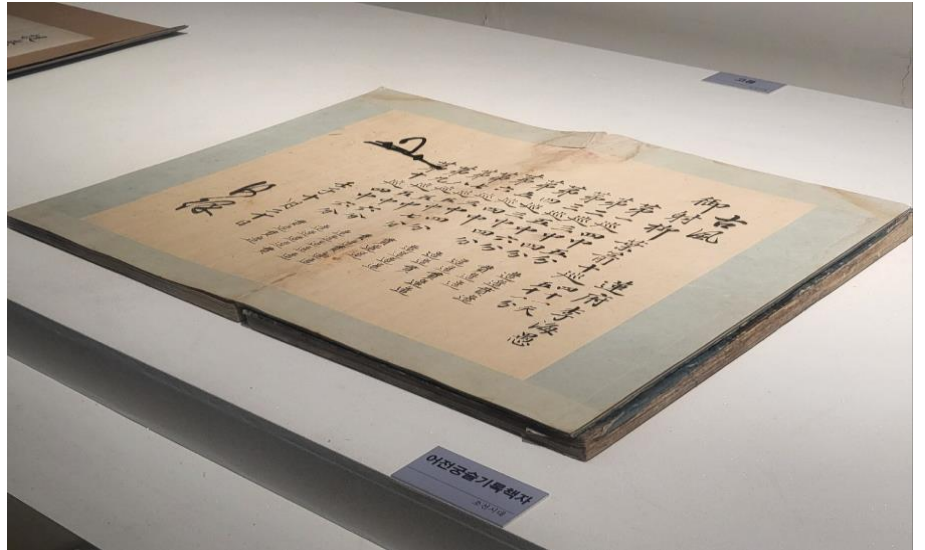
(궁도)스포츠지도사 배치로 5년내 3배 성장! 300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궁도 선수는 9,330명으로, 1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몇몇 클럽이 분화된 사례를 보면, 다양한 성격의 활동 단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선수 수가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동호회>가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되어 체육회에 순회 (궁도)스포츠 지도사를 요청하여 배치하게 된다면, 이는 국궁장의 활성화를 넘어 궁도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비전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끝.



1. 2024년 총회개최(화랑정 2024년 12월 30일)



2024년 12월 30일(월) 화랑정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도 사업 결과 보고 및 승인 건,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임원 개선 건이었다. 2024년도 사업 결과를 승인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시켰으며, 이동보사무국장의 사의로 지동철회원이 새롭게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총회에 앞서 1시간 정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군사전문박물관인 육군박물관에서 김기훈 교수의 자세한 설명과 해설을 들었다. 월요일은 휴관임에도 불구하고, 전 박물관장이시고, 육사명예교수님의 후광으로

고종황제의 호미각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총회 후에는 두팀으로 나누어 편사를 거행하였다. 2024년을 대표하는 청룡팀과 2025년을 대표하는 청사팀의 편사에서 청사팀이 이겼다. 편사후에는 양희선접장님의 추천으로 화랑정 근처의 명가소나무 집에서 오리백숙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히 서순종명궁께서 상품으로 명적을 찬조하여 몇분께 멋진 상품을 시상하게 되었고, 공운식장안편사보존회장이 대만 명주58을 찬조해주었다.

2. 국가유산청 전승공동체 사업 지원 실패와 한국궁도대학연맹의 2025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연계 지원사업 선정

지난 2월 국가유산청의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의 주도적·자율적 전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향사례의 현대적 복원과 재현”이란 이름으로 충청북도와 충주시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본 사업은 활쏘기문화보존회의 주도로 성균관유도회충주지부(충주향교), 세계무술연맹과 같이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었다. 한편 김창선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궁도대학연맹에서는 ‘청년 시수꾼 아카데미가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연계 지원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전승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활쏘기의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전국 대학 활쏘기 동아리 대표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통 활쏘기 교육과 전승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총 14회의 세미나와 특강, 역사탐방, 집중 캠프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강사의 대다수는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의 회원들이 맡는다.

3. 전통활쏘기 카자흐스탄 쉼켄트 아시안게임참가(3월 13-17일)

카자흐스탄의 제3도시인 쉼켄트(Shymkent)에서 3월 13-17일까지 아시안게 임이 열렸다. 나영일회장, 변정용 교수, 지동철 사무총장이 참가하였다. 한국 에서는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과 울산 선수단 그리고 울산시 및 울산방송국에 서 참가하였다.



상좌 대회전경 상우 우즈베크
팀과 함께 하우 터키 팀과 함
께 하좌사마라칸드 아프라
시압 고구리 사신도





나영일 회장과 지동철 사무총장이 3월 12일에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 가서 변정용 교수를 만나서 다음날 타쉬켄트시 중심에서 카자흐탄 쉼켄트는 130km 거리에 있다. 먼저 40km 거리에 있는 국경을 택시로 이동한 다음 걸어서 출입국 수속을 한 다음 카자흐스탄의 쉼켄트로 직접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쉼켄트는 인구 110만으로 카자흐탄 제3의 도시이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울산 선수단과 만났다. 다음날 경기는 푸타과녁 (남 70미터, 여자 60미터)과 잠비과녁 (30미터)으로 진행되었다. 상금은 약 1,400만원정도라고 한다. 참가국은 10개국정도에 150명 정도 규모였다. 카자흐스탄에서 걸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국경을 걸어서 넘어오는 경험과 대회후인 18-19일에 사마르칸트에서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에 있는 고구리 사신도를 본 경험과 사마르칸트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살펴본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4. 단오편사대회(5월 31일)



단오날인 5월 31일(토)에 양평정에서 오후 2시부터 편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양평정 차윤경 사두와 한용진 부사두의 후의로 보존회의 17명 회원들과 양평정 사원 7명과 함께 편사를 거행하였다. 이번 단오 편사에서는 저녁 식사비를 석호정의 김영섭 회원이 후원하여 주었고, 남현경 여무사가 선물로 보궁을 찬조하여 주었으며, 안양정의 David와 Jakaria가 지동철 사무국장과 같이 참여하여 국제 편사대회가 되었다.

5. 기타

2024년 12월 27일 김은영 회원의 부친상, 5월 12일 김영섭 회원의 모친상에 조화를 전달하였다.

회원 대모집

1. 활쏘기문화보존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새롭게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2. 주위에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홈페이지(http://kacs2020.com/bbs/board.php?bo_table=0501)에 들어가 먼저 로그인한 후, “자료마당”에 들어가 “각종서식”에 있는 “입회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음, 이동보국장(010-6562-31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5년 6월호

